

Research Article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study abroad and friendship patterns on college adaptation of Mongolian students*

Baigali Erdenetsoqt, Gyeong-ran Kim, and Dong-Heon Seok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study abroad and friendship patterns on college adaptation of Mongolian students. 241 Mongolian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questionnaires which were translated into Mongolian. The questionnaires measured the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study abroad, friendships patterns and college adaptation of Mongolian students. The data of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post hoc tests(Scheffé) were performed to the factors which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nalysis of variance(ANOVA). The important findings of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 Mongolian college students with autonomous motivation to study abroad adapted better to college life than Mongolian college students with controlled motivation to study abroad. Secondly, Mongolian college students who had more interaction with Korean friends adapted better to college life than students who had no or little interaction with Korean friends. Finally, Mongolian college students who had more interaction with multi-national friends adapted better to college life than Mongolian college students who had no or little interaction with multi-national friends. This study suggests that Mongolian college students need an intervention to adapt to college life by examining factors that affect their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Korea.

Keywords: Mongolian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ed motivation, study abroad, friendship patterns, college adaptation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Daegu University Research Grant, 2019.

This paper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 thesis.

Corresponding author: Dong-Heon Seok, sdh@daegu.ac.kr

<https://doi.org/10.33071/ssricb.47.1.202302.49>

I. 서론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1년 152,281명으로 십 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별 비율은 중국인 44.2%, 베트남인 23.5%, 우즈베크인 5.4%, 몽골인 4.0%, 일본인 2.5% 등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80%가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대학 재정에 도움을 주고 국적 다양성 증가를 통해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유학 중도탈락이나 불법 체류자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도 동반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Ministry of Justice, 2022). 이러한 유학 중도탈락, 불법 체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 중 경험하는 대학생활 적응, 문화 적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An and Rhee, 2017; Song and Jang, 20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대학생활 적응문제 및 문화 적응문제는 그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Lee and Kim, 2015), 학업 포기과 불법 체류 등의 범법 행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Kim and Song, 2011; Park and Park, 2017). 이에 많은 연구자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문제 해결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심리적 또는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hin, Han and Park, 2018).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서 겪는 어려움에 문화 적응, 학업 스트레스 등과 같은 공통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출신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Choi and Cho, 2014; Kim, 2018).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유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몽골인 유학생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대학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지만(Kim, 2018; Kim and Kim 2015), 높은 문화적응 수준과 달리 정서적 적응 수준은 가장 낮았다(Batkhisig, 2020).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입증되는데, 몽골인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몽골 유학생은 대학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은 높지만, 정서적 적응 수준은 낮았다(Choi and Cho, 2014). 또한, 한국인 친구의 수가 적거나, 한국인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몽골 유학생일수록 학교적응과 학업 적응 수준이 낮았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Choi and Cho, 2014).

출신 국가별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문제를 살펴본 대부분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몽골 유학생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몽골 유학생 수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몽골 유학생의 적응문제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에서도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SDT), Deci and Ryan, 1985]을 바탕으로 한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한국에서의 교우관계에 주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는 유학 결정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이 가진 자기 결정성 수준으로, 자기 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행동이 자율성 혹은 자기 결정적 수준에 따라 조절된다고 보며, 그 조절의 수준에 따라 동기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서 설명하는 이론이다(Deci and Ryan, 1985).

Ryan and Deci(2000)는 자기 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동기 연속선 위에 무동기(amotivation),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 그리고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동기는 행동에 대한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실제로 행동을 수행하지 않거나 의도 없이 행동을 수행한다(Ryan and Deci, 2000).

외재적 동기는 외부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외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힘으로 정의된다. 외재적 동기는 자기 결정성의 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외적조절(external regulation), 내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동일시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로 구분된다(Ryan and Deci, 2000). 외적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 자기 결정성이 가장 부족한 동기로, 외적 자극에 의해 행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적조절 상태의 행동은 외적 자극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Ryan and Deci, 2000). 유학 결정 시에 외부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내사된 조절은 약한 자기 결정성을 가진 동기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도록 하는 외적인 요구를 선택하게 하는 동기이다. 내사된 조

절 상태의 개인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을 피하고자 행동한다 (Van den Broeck, Lens, De Witte and Van Coillie, 2013). 유학 결정 시에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유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시된 조절은 행동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길 때 행동을 수행하는 상태로, 외적조절과 내사된 조절보다 자기 결정성이 더 높긴 하나 여전히 내재적 흥미나 동기가 아닌 외적 자극에 의해 행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에 속한다. 통합된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에서 가장 자기 결정성이 높은 상태로, 통합된 조절 상태의 개인은 새로운 행동과 행동의 가치를 자신의 기존 행동과 행동의 가치에 일치시킨 후 행동한다 (Gagné and Deci, 2005).

내재적 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개인 내부에 있는 동기로 행동 그 자체의 즐거움 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자 하는 힘으로 정의된다(Deci and Ryan, 1991). 내재적 동기는 행동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내면화된 상태로, 가장 자기 결정성이 높은 동기 유형이다(Gagné and Deci, 2005).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하위 동기들은 다시 자기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기능(autonomous functioning) 또는 자기 결정적인 기능(self-determination functioning)의 정도에 따라 크게 통제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와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로 구분될 수 있다. 통제적 동기는 자기 결정성이 부족하고 외적 요인에 의해 통제되어 발생하는 동기 범주로, 외적조절과 내사된 조절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와 달리, 자율적 동기는 자기 결정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발생한 동기 범주로 동일시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Deci and Ryan, 2004; Gagné and Deci, 2005).

동기의 자기 결정성 수준이 몽골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다룬 국내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지만, 해외 연구를 통해 동기의 자기 결정성 수준이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부 압력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학생들보다 스스로 유학을 결정한 학생들의 문화 적응 수준과 심리적 안정감이 더 높았고 (Chirkov, Vansteenkiste, Tao and Lynch, 2007), 문화충격을 더 적게 경험했으며,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했다(Yang, Zhang and Sheldon, 2018). 또한, 동기의 자기 결정성 수준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은 그렇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보다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이었다(Hodgins and Knee,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유

학 결정에 대한 자기 결정성 수준이 낮은 외국인 유학생보다 자기 결정성 수준이 높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들보다 자율적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가설 1로 설정하였다.

2. 교우관계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변인은 한국에서의 교우관계이다. 한국에서의 교우관계가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서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새로운 대학 환경과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곳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가 유학생들의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Rosenthal, Russell and Thomson, 2007).

외국인 유학생의 교우관계 유형은 크게 현지인 친구(host national), 모국인 친구(co-national) 및 기타 국가의 외국인 친구(multi-national)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세 집단과의 교우관계는 서로 다르게 한국에서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Bochner, Mcleod and Lin, 1977; Furnham and Alibhai, 1985). 현지인 친구는 언어적 또는 학업 적응에 도움을 주며(Kim, 2007; Shin and Kim, 2019), 모국인 친구는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Kim, 2014), 모국인 친구와의 만남과 대화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우울함을 감소시켜준다(Lim, 2009).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현지인 친구가 적은 중국인 유학생보다 현지인 친구가 많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았고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 적응 수준은 더 높았다(Xiao and Ahn, 2016). 그러므로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인 친구가 많은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의 모든 면에서는 아닐지라도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더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가설 2로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대인관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최근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 및 학업적 적응에 기타 국가의 외국인 친구와의 관계 역시 큰 영향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Schartner, 2015; Schartner and Young, 2016). 영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기타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이 그들의 학업적 성공을 예측하고(Pho and Schartner, 2021; Young, Sercombe, Sachdev, Naeb and Schartner, 2013), 유학 중인 국가에서의 삶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만족도와 사회 및 문화적 적응도 예측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Schartner, 2014).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모국인 친구와의 관계가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Furnham and Alibhai, 1985; Maundeni, 2001; Neri and Ville, 2008). 하지만 거주 지역에 모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이 외국인의 적응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Kim, 2014; Kim and Lee, 2015; Shin and Kim, 2019)가 제시되면서 모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더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가설 3으로 설정하였다.

많은 연구가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노력을 들이는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친밀하고 지지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는지가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문화 적응에 결정적인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문제 중 인간관계 문제, 특히 교우관계를 중요 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흔하지 않고, 교우관계를 중요 변인으로 다룬 소수의 연구(Shin and Kim, 2019) 역시 대부분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유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몽골 유학생 수는 지난 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중국 유학생의 적응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 결과가 몽골 유학생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는 것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설 1. 통제된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들보다 자율적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가설 2.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가설 3. 한국인을 제외한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참가자

참가자는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 동안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을 제외한 총 241명(남성 87명, 여성 154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pondent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Sex		
Male	87	36.10
Female	154	63.90
Age (years)		
18~19	10	4.15
20~21	67	27.80
22~23	53	21.99
24~25	37	15.35
26~27	29	12.03
28~29	18	7.47
more than 30	27	11.20
Types of Study Abroad Programs		
Language Training	21	10.37
Exchange Program	4	1.66
Bachelor Course	114	48.55
Master Course	78	34.85
PhD Course	12	4.56
Period of Residence (years)		
half a year or less	26	10.79
1~2	104	43.15
3~4	86	35.68

Variables	N	%
5~6	15	6.22
more than 7	10	4.14
Korean Proficiency		
Beginner	4	1.66
Elementary	7	2.90
Intermediate	110	45.64
Upper-Intermediate	101	41.91
Advanced	19	7.88

2. 측정 도구

1) 유학 관련 자기 조절 질문지(Self-Regulation Questionnaire-Study Abroad, SRQ-SA)

자기결정적 유학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Chirkov *et al.*(2007)이 개발한 자기조절 질문지를 몽골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외재적 동기 중 하나인 통합된 조절을 제외한 4개의 하위요인(외적조절, 내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 내재적 동기)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총 21개 문항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고, 4개의 하위요인인 외적조절, 내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 내재적 동기 각각의 신뢰도는 .71, .83, .85, .70으로 나타났다.

SRQ-SA 질문지의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상대적 자율성 지표(Relative Autonomy Index: RAI)를 산출하였다. RAI 점수는 자기 결정적 동기의 하위 동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자율적 동기와 통제된 동기를 산출하고, 산출된 자율적 동기에서 통제된 동기를 뺀 값으로 계산된다[RAI 점수 공식: (2×내재적 동기+동일시된 조절) - (내사된 조절+외적조절×2)]. RAI 점수가 양수라면 자율적 동기에 의해, 점수가 음수라면 통제적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Baker and Siryk(1984)이 개발하고 Hyun(1992)이 변안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및 정서적 적응, 대학 만족도)으로 구성되어 있고, 9점 척도(1=그렇지 않다, 9=매우 그렇다)의 총 67개 문항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적응과는 상관없이 응답자의 주거 상황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65개의 문항을 설문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고, 4개의 하위요인인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및 정서적 적응, 대학 만족도 각각의 신뢰도는 .84, .74, .89, .86으로 나타났다.

3) 교우관계

Park(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측정 문항을 수정한 후 교우관계를 측정했다. 본 연구는 몽골 유학생의 교우관계 상대를 ‘한국 학생’, ‘몽골 유학생’, ‘한국을 제외한 타국 유학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문항은 최근 한 달 동안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날의 수를 묻는 문항이고 6점 척도(1=전혀 교류 없다, 6=20회 이상)였다. 두 번째 문항은 자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 유형의 집단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고 6점 척도(1=없다, 6=11명 이상)를 사용하였다. 단, 최근 한 달 동안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한 날의 수를 측정할 때 단순히 인사만 했던 정도는 제외했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했다.

2. 연구절차

조사대상자는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몽골 유학생으로, 인터넷 설문을 통해 응답하였다. 척도들은 한국의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두 명의 몽골 유학생에 의해 번역과 역번역 작업(Brislin, 1986)을 거쳤다. 먼저 몽골 유학생 한 명이 한국어판 질문지를 몽골어로 번역한 다음 다른 몽골 유학생이 몽골어로 번역된 질문지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였다. 척도들은 한국어 원본과 몽골어로부터 역번역된 번역본 간에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설문에 사용되었다.

3. 자료 분석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 교우관계와 대학생활 적응 간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했고, 변량분석 결과에서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는 사후검증(Scheffé)이 실시했다.

III. 결과

1.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SD) of Scales

Variables	Means	Std. Deviation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Study Abroad		
External Regulation	1.72	.81
Introjected Regulation	2.05	.78
Identified Regulation	3.55	.95
Intrinsic Motivation	3.46	.82
RAI	4.96	3.19
College Adaptation		
Academic Adjustment	5.35	1.05
Social Adjustment	4.64	1.26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5.13	1.57
College Satisfaction	6.34	1.27

Table 2는 척도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결과이다. 대학생활 적응 척도의 65개 문항 중 다른 문항과 관련성이 낮은 문항 1개, 다른 문항과 역상관 관계의 문항 1개, 하위요인과 관련성이 낮은 문항 2개의 총 4개 문항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몽골 유학생들은 외적조절($t_{(240)}=-24.25, p<.001$), 내사된 조절($t_{(240)}=-18.95, p<.001$), 동일시된 조절($t_{(240)}=9.03, p<.001$), 내재적 동기($t_{(240)}=8.77, p<.001$)에 대해 중간 정도의 점수인 3점으로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고, RAI 점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자율적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RAI 점수의 0으로부터의 차이 검증: $t_{(240)}=24.15$, $p<.001$).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몽골 유학생들은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업 적응($t_{(240)}=5.22$, $p<.001$), 사회적 적응($t_{(240)}=-4.45$, $p<.001$), 대학 만족도($t_{(240)}=16.35$, $p<.001$)에 대해 중간 정도의 점수인 5점으로부터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개인 및 정서적 적응($t_{(240)}=1.25$, $p=.21$)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대학의 학업에 잘 적응하고 대학에 만족하고 있으나,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Self-determined Motivation to Study Abroad and College Adaption

	External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Identified Regulation	Intrinsic Motivation	RAI
Academic Adjustment	-.14*	-.11	.12	-.05	.16***
Social Adjustment	.04	.03	.13*	-.04	.03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17**	-.24***	-.04	-.04	.12
College Satisfaction	-.25***	-.21***	.24***	.07	.29***

* $p<.05$, ** $p<.01$, *** $p<.001$

Table 3은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간 상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외적조절은 학업 적응($r=-.14$, $p<.05$), 개인 및 정서적 적응($r=-.17$, $p<.01$), 대학 만족도($r=-.25$,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내사된 조절은 개인 및 정서적 적응($r=-.24$, $p<.001$), 대학 만족도($r=-.21$, $p<.0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동일시된 조절은 사회적 적응($r=.13$, $p<.05$), 대학 만족도($r=.24$,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AI 점수는 학업 적응($r=.16$, $p<.05$), 대학 만족도($r=.29$,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재적 동기는 대학 적응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Friendship Patterns and College Adaption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Friends during the past one month		
	Host National (Korean)	Co-national (Mongolian)	Multi-national
Academic Adjustment	.25***	-.00	.18**
Social Adjustment	.24***	.18**	.22***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10	-.06	.00
College Satisfaction	.26***	-.07	.17**
	The Number of Friends Whom They Can Open Their Mind		
	Host National (Korean)	Co-national (Mongolian)	Multi-national
Academic Adjustment	.25***	.19**	.19**
Social Adjustment	.35***	.24***	.21***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08	.19**	.00
College Satisfaction	.20**	.13*	.11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는 교우관계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분석 결과이다. 분석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 교류한 횟수는 학업 적응($r=.25$, $p<.001$), 사회적 적응($r=.24$, $p<.001$), 대학 만족도($r=.26$,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몽골 학생과 교류한 횟수는 사회적 적응($r=.18$,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한국인을 제외한 타국 유학생과 교류한 횟수는 학업 적응($r=.18$, $p<.01$), 사회적 적응($r=.22$, $p<.001$), 대학 만족도($r=.17$,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한국 학생이나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는 학업과 사회적 적응 그리고 대학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개인 및 정서적 적응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몽골인 자국 유학생과의 교류는 사회적 적응에 도움이 되지만 대학생활 적응의 다른 측면들과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 학생 친구의 수는 학업 적응($r=.25$, $p<.001$), 사회적 적응($r=.35$, $p<.001$), 대학 만족도($r=.20$,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몽골 유학생 친구의 수는 학업 적응($r=.19$, $p<.01$), 사회적 적응($r=.24$, $p<.001$), 개인 및 정서적 적응($r=.19$, $p<.01$), 대학 만족도($r=.13$, $p<.05$)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는 학업 적응($r=.19$, $p<.01$), 사회적 적응($r=.21$,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 학생이나 타국 유학생이 많은 것은 개인 및 정서적 측면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몽골 유학생 친구가 많은 것은 대학생활 적응의 모든 측면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 친구나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보다는 자국인 몽골 유학생 친구의 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어, 개인 및 정서적 적응에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국인 친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로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남성 87명, 여성 154명). 분석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교류한 친구의 국적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은 남성과 여성 모두 Table 4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의 국적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상관분석 결과, 여성 몽골 유학생은 Table 4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남성 몽골 유학생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몽골 친구의 수가 여성 몽골 유학생의 학업적응($r=.25, p<.01$), 사회적 적응($r=.26, p<.01$), 개인 및 정서적 적응($r=.26, p<.01$), 대학 만족도($r=.24, p<.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이 요인들이 남성 몽골 유학생에게는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여성 몽골 유학생들에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국인 친구가 중요하지만 남성에게는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측정변인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1)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차이

Table 5는 각 참가자의 RAI 점수 분포에서 중앙치를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상위집단을 자율적 동기 집단으로 하위집단을 통제적 동기 집단으로 삼아, 차이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통제적 동기 집단보다 자율적 동기 집단의 학업 적응($t_{(240)}=2.19, p<.05$), 대학 만족도($t_{(240)}=3.88, p<.001$),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t_{(240)}=2.46, p<.05$)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통제적 동기에 의해 유학 온 몽골 유학생보다 자율적 동기에 의해 유학 온 몽골 유학생이 학업에 더 잘 적응하고, 대학에 더 만족하며,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자율적 동기 점수에서 통제적 동기 점수를 뺀 점수(RAI)로 자기 결정성 수준을 살펴보지만,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 이 점수가 0에 가까워져 RAI 점수에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모두 높은 경우와 모두 낮은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한 뒤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다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Table 5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제적 동기 집단보다 자율적 동기 집단의 학업 적응($t_{(122)}=5.02, p<.05$), 대학 만족도($t_{(122)}=18.58, p<.001$),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t_{(122)}=5.73, p<.05$)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분석 모두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에 따라, 통제적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들보다 자율적 동기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들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가설1이 지지되었다.

<Table 5>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by Autonomous Motivation and Controlled Motivation

	Autonomous Motivation (N=120)		Controlled Motivation (N=121)		<i>t</i>
	<i>M</i>	<i>SD</i>	<i>M</i>	<i>SD</i>	
Academic Adjustment	5.50	1.05	5.21	1.04	2.19*
Social Adjustment	4.68	1.20	4.60	1.31	.53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5.27	1.57	4.98	1.56	1.46
College Satisfaction	6.65	1.19	6.03	1.27	3.88***
College Adaptation (TOTAL)	5.53	1.01	5.20	1.03	2.46*

* $p<.05$, ** $p<.01$, *** $p<.001$

추가로 성별에 따른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남성 87명, 여성 154명), 남성 몽골 유학생의 분석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남성 몽골 유학생은 통제적 동기 집단보다 자율적 동기 집단의 학업 적응($t_{(85)}=2.03, p<.05$), 개인 및 정서적 적응($t_{(85)}=2.43, p<.05$), 대학 만족도($t_{(85)}=3.88, p<.001$), 대학생활 적응($t_{(85)}=3.02, p<.01$)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여성 몽골 유학생은 통제적 동기 집단보다 자율적 동기 집단의 대학 만족도($t_{(132)}=2.62, p<.01$) 수준만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양상은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모두 높은 경우와 모두 낮은 경우를 분석에서 제외한

뒤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역시 같았다. 이 결과는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가 여성 몽골 유학생의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보다 남성 몽골 유학생의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에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2) 교우관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Table 6>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by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Korean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Korean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i>F</i>	Scheffé
	1. None or Low (<i>N</i> =136)		2. Moderate (<i>N</i> =56)		3. High (<i>N</i> =49)			
	<i>M</i>	<i>SD</i>	<i>M</i>	<i>SD</i>	<i>M</i>	<i>SD</i>		
Academic Adjustment	5.11	1.09	5.50	.93	5.85	.87	10.17***	1<3
Social Adjustment	4.32	1.16	4.94	1.21	5.18	1.33	11.19***	1<2,3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4.97	1.58	5.29	1.45	5.36	1.67	1.48	
College Satisfaction	6.04	1.28	6.54	1.12	6.93	1.15	10.62***	1<2,3
College Adaptation (TOTAL)	5.11	1.04	5.57	.90	5.83	.95	10.89***	1<2,3

p*< .05, *p*< .01, ****p*< .001

Table 6은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의 교류 정도를 교류 없거나 적음(0회~3회), 교류 중간(4회~9회), 교류 많음(10회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한국 학생과 교류가 없거나 적은 집단보다 교류 많음 집단의 학업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_{(2,238)}=10.17, p<.001$). 또한, 한국 학생과 교류가 없거나 적은 집단보다 교류 중간 집단, 교류 많음 집단의 사회적 적응($F_{(2,238)}=11.19, p<.001$), 대학만족도($F_{(2,238)}=10.62, p<.001$), 대학생활 적응($F_{(2,238)}=10.89, p<.001$)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 교류가 없었거나 1회 교류한 몽골 유학생보다 한국 학생과 4회 이상 교류한 몽골 유학생이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대학 만족도도 높으며 전반적으로 대학생활에 잘 적응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의 교류 정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서 성차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 몽골 유학생과 여성 몽골 유학생의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의 교류 정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성 몽골 유학생과 달리 남성 몽골 유학생이 대학 만족도($F_{(2,84)}=1.62, p=.20$)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의 교류 정도가 남성 몽골 유학생의 대학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7>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by the Number of Korean Friends Whom They Can Open Their Mind

	The Number of Korean Friends Whom They Can Open Their Mind						<i>F</i>	Scheffé
	1. None		2. Moderate		3. A Lot			
	(N=154)		(N=76)		(N=11)			
	<i>M</i>	<i>SD</i>	<i>M</i>	<i>SD</i>	<i>M</i>	<i>SD</i>		
Academic Adjustment	5.16	1.08	5.62	.87	6.19	1.19	8.82***	1<2,3
Social Adjustment	4.36	1.13	4.93	1.18	6.53	1.47	21.16***	1<2<3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5.07	1.56	5.11	1.55	6.00	1.77	1.80	
College Satisfaction	6.13	1.32	6.64	1.04	7.13	1.32	6.60**	1<2,3
College Adaptation (TOTAL)	5.18	1.02	5.57	.90	6.46	1.23	10.97***	1<2<3

* $p<.05$, ** $p<.01$, *** $p<.001$

Table 7은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의 수를 친구없음(0명), 친구중간(1명~4명), 친구많음(5명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한국인 친구의 수를 이러한 세 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는 241명의 참가자 중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154명으로 다른 집단의 참가자 수와 그 차이가 커서, 1명 단위로 집단을 구성할 경우 분석의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집단의 참가자 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한국인 친구의 수에 따른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집단을 친구없음, 친구중간, 친구많음으로 나눈 후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친구없음 집단보다 친구중간, 친구많음 집단의 학업 적응($F_{(2,238)}=8.82, p<.001$), 사회적 적응($F_{(2,238)}=21.16, p<.001$), 대학 만족도($F_{(2,238)}=6.60, p<.01$),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F_{(2,238)}=10.97, p<.001$)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친구중간 집단과 친구많음 집단을 비교하면 친구중간 집단보다 친구많음 집단의 사회

적 적응($F_{(2,238)}=21.16, p<.001$), 대학생활 적응($F_{(2,238)}=10.97, p<.001$)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 친구가 없는 몽골 유학생보다 이러한 한국 친구가 1명 이상 있는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과 학업, 사회에 더 잘 적응했고 대학 만족도도 더 높았다. 따라서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더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추가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의 수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성차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몽골 유학생의 분석 결과는 Table 7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남성 몽골 유학생의 경우 사회적 적응($F_{(2,84)}=4.53, p<.05$)을 제외한 학업 적응($F_{(2,84)}=.48, p=.62$), 개인 및 정서적 적응($F_{(2,84)}=.93, p=.40$), 대학 만족도($F_{(2,84)}=.84, p=.44$), 대학생활 적응($F_{(2,84)}=.48, p=.62$)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의 수가 여성 몽골 유학생의 적응에는 영향을 주지만 남성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8>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by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Multi-national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The Level Interaction with Multi-national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i>F</i>	Scheffé
	1. None or Low (<i>N</i> =166)		2. Moderate (<i>N</i> =55)		3. High (<i>N</i> =20)			
	<i>M</i>	<i>SD</i>	<i>M</i>	<i>SD</i>	<i>M</i>	<i>SD</i>		
Academic Adjustment	5.24	1.05	5.52	.98	5.83	1.13	3.72*	1<3
Social Adjustment	4.48	1.17	4.87	1.23	5.36	1.66	5.88**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5.16	1.56	5.03	1.67	5.10	1.49	.16	
College Satisfaction	6.20	1.27	6.61	1.25	6.68	1.16	2.97	
College Adaptation (TOTAL)	5.27	.10	5.51	1.08	5.74	1.12	2.59	

* $p<.05$, ** $p<.01$, *** $p<.001$

Table 8은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 정도를 교류 없거나 적음(0회~3회), 교류 중간(4회~9회), 교류 많음(10회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 교류가 없거나 적은 집단보다 교류 많은 집단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_{(2,238)}=5.88, p<.01$). 즉,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 교류가 없었거나 1회 교류한 몽골 유학생보다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 10회 이상 교류한 몽골 유학생이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했다.

<Table 9>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by the Number of Multi-national Friends Whom They Can Open Their Mind

	The Number of Multi-national Friends Whom They Can Open Their Mind						<i>F</i>	Scheffé
	1. None		2. Moderate		3. A Lot			
	(N=171)		(N=61)		(N=9)			
	<i>M</i>	<i>SD</i>	<i>M</i>	<i>SD</i>	<i>M</i>	<i>SD</i>		
Academic Adjustment	5.21	1.04	5.71	1.04	5.65	.96	5.70**	1<2
Social Adjustment	4.46	1.17	5.03	1.17	5.37	2.38	6.34**	1<2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5.11	1.56	5.21	1.59	4.86	1.81	.23	
College Satisfaction	6.20	1.29	6.75	1.09	6.16	1.41	4.56*	1<2
College Adaptation (TOTAL)	5.24	1.01	5.68	.97	5.51	1.42	4.14*	1<2

* $p<.05$, ** $p<.01$, *** $p<.001$

Table 9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를 친구없음(0명), 친구중간(1명~4명), 친구많음(5명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를 이러한 세 집단으로 구분한 이유는 앞서 실시한 한국인 친구의 수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241명의 참가자 중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 유학생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참가자가 171명으로 다른 집단의 참가자 수와 그 차이가 커서, 1명 단위로 집단을 구성할 경우 분석의 타당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집단의 참가자 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타국인 친구의 수에 따른 결과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집단을 친구없음(0명), 친구중간(1명~4명), 친구많음(5명 이상)으로 나눈 후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인 친구없음 집단보다 친구가 1명 이상인 집단의 학업 적응($F_{(2,238)}=5.70, p<.01$), 사회적 적응($F_{(2,238)}=6.34, p<.01$), 대학 만족도($F_{(2,238)}=4.56, p<.05$),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F_{(2,238)}=4.14, p<.01$)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참고로, 사회적 적응에 대해 친구없음 집단과 친구많음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던 이유는 친구많은 집단의 사례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더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추가로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 정도 및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서의 성차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몽골 유학생의 분석 결과는 Table 8과 Table 9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남성 몽골 유학생의 분석 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남성 몽골 유학생은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 정도 및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 유학생의 수에 따라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 및 정서적 적응, 대학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 유학생의 수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검증에서 여성 몽골 유학생은 개인 및 정서적 적응($F_{(2,151)}=.28, p=.75$)을 제외한 학업 적응($F_{(2,151)}=5.37, p<.01$), 사회적 적응($F_{(2,151)}=4.41, p<.01$), 대학 만족도($F_{(2,151)}=3.32, p<.01$), 대학생활 적응($F_{(2,151)}=3.71,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남성 몽골 유학생은 개인 및 정서적 적응($F_{(2,84)}=.65, p=.52$)을 포함하여 여성 몽골 유학생에게 유의했던 학업 적응($F_{(2,84)}=1.20, p=.31$), 사회적 적응($F_{(2,84)}=1.97, p=.15$), 대학 만족도($F_{(2,84)}=1.70, p=.19$), 대학생활 적응($F_{(2,84)}=1.03, p=.36$)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를 Table 7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의 수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 분석 결과와 통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와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가 많다는 것은 남성 몽골 유학생보다 여성 몽골 유학생의 대학적응과 대학 만족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몽골 유학생의 교우관계를 단순히 한국 학생, 몽골 유학생, 타국 유학생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실에서 몽골 유학생의 교우관계의 유형은 더 복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학생과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은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 역시 많을 수 있다. 이에 몽골 유학생의 교우관계 유형을 세분화한 후 교우관계 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하였다.

<Table 10>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by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Korean Students and Multi-national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Korean and Multi-national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i>F</i>		
	None or Low for Both Groups (<i>N</i> =110)		None or Low for Korean and High for Multi-national Students (<i>N</i> =7)		High for Korean and None or Low for Multi-national Students (<i>N</i> =23)		High for Both Groups (<i>N</i> =8)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Academic Adjustment	5.09	1.08	5.73	1.71	5.74	.80	5.84	.79	3.75*		
Social Adjustment	4.29	1.11	4.83	1.55	4.76	1.24	5.50	1.89	3.38*		
Personal -Emotional Adjustment	5.14	1.58	4.46	1.63	5.34	1.64	5.06	1.48	.56		
College Satisfaction	6.03	1.30	6.38	1.01	6.79	1.23	6.93	1.22	3.18*		
College Adaptation (TOTAL)	5.14	1.03	5.35	1.29	5.66	.84	5.83	1.08	2.54		

* $p < .05$, ** $p < .01$, *** $p < .001$

먼저,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 교류한 정도를 교류 없거나 적음(0회~3회), 교류 많음(10회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했고,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 교류한 정도도 교류 없거나 적음(0회~3회), 교류 많음(10회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했다. 다음으로 집단들을 교차하여 네 집단(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 교류가 없거나 적고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도 없거나 적은 집단, 한국 학생과 교류가 없거나 적고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가 많은 집단, 한국 학생과 교류가 많고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가 없거나 적은 집단, 한국 학생과 교류가 많고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도 많은 집단)을 구성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Table 10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학업 적응($F_{(3,144)}=3.75$, $p<.05$), 사회적 적응($F_{(3,144)}=3.38$, $p<.05$), 대학 만족도($F_{(3,144)}=3.18$, $p<.05$)에서 전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사후검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한국 학생 및 타국 유학생 모두와 지

난 한 달간 교류가 많았던 몽골 유학생들이 두 집단의 학생들 모두와 교류가 적었던 몽골 유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학업 및 사회적 적응과 대학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 교류한 정도를 교류 없거나 적음(0회~3회), 교류 중간(4회~9회), 교류 많음(10회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 교류한 정도도 교류 없거나 적음(0회~3회), 교류 중간(4회~9회), 교류 많음(10회 이상)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집단들을 교차하여 아홉 집단을 구성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는 Table 11에 제시되었다.

분석 결과, 개인 및 정서적 적응을 제외하고 학업 적응 ($F_{(8,232)}=3.10, p<.01$), 대학 만족도($F_{(8,232)}=2.97, p<.01$), 대학생활 적응($F_{(8,232)}=3.38, p<.01$)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했다. 사후분석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 및 타국 유학생 모두와 교류 없거나 적은 집단보다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의 교류 많음 및 타국 유학생과 교류 중간 집단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F_{(8,232)}=4.13, p<.001$). 비록,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평균 간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 및 타국 유학생과 일정 정도 이상의 교류를 하고 있는 집단들이 이들 두 집단 모두와 교류가 없는 집단보다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 만족도 및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 및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 및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에 따라 참가자 집단을 네 집단 또는 아홉 집단으로 구분할 경우 한국인 친구가 없고 타국 유학생 친구는 많은 집단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예 없었고, 대부분 사례가 한국인 친구가 없고 타국 유학생 친구도 없는 집단($N=131$)에 속하였다. 이처럼 각 집단에 유의한 해석이 가능한 사례수가 확보되지 않아 타당한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 및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에 따른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Table 11> Differences in College Adaptation by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Korean Students and Multi-national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The Level of Interaction with Korean Students and Multi-national Students during the past one month																		<i>F</i>	Scheffé
	1.		2.		3.		4.		5.		6.		7.		8.		9.			
	None or Low for Both Group (<i>N</i> =110)		None or Low for Korean and Moderate for Multi -national Students (<i>N</i> =19)		Moderate for Korean and None or Low for Multi -national Students (<i>N</i> =33)		None or Low for Korean and High for Multi -national Students (<i>N</i> =7)		High for Korean and None or Low for Multi -national Students (<i>N</i> =23)		Moderate for Both Groups (<i>N</i> =18)		Moderate for Korean and High for Multi -national Students (<i>N</i> =5)		High for Korean and Moderate for Multi -national Students (<i>N</i> =18)		High for Both Groups (<i>N</i> =8)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Academic Adjustment	5.09	1.08	5.05	.85	5.41	.98	5.73	1.71	5.74	.80	5.55	.89	5.95	.73	5.99	1.01	5.84	.79	3.10**	
Social Adjustment	4.29	1.11	4.32	1.27	4.89	1.21	4.83	1.55	4.76	1.24	4.76	1.06	5.89	1.52	5.57	1.05	5.50	1.89	4.13***	1<8
Personal -Emotional Adjustment	5.14	1.58	4.21	1.33	5.12	1.46	4.46	1.63	5.34	1.64	5.40	1.53	6.08	.93	5.51	1.86	5.06	1.48	1.47	
College Satisfaction	6.03	1.30	5.96	1.29	6.37	1.06	6.38	1.01	6.79	1.23	6.79	1.17	6.71	1.41	7.11	1.05	6.93	1.22	2.97**	
College Adaptation (TOTAL)	5.14	1.03	4.89	1.01	5.45	.90	5.35	1.29	5.66	.84	5.63	.88	6.16	.92	6.05	1.04	5.83	1.08	3.38**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 몽골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검증했다. 몽골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지난 십년간 몽골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에 반해,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가설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참가자의 자율적 동기에서 통제적 동기를 뺀 상대적 자율성 지표(RAI)를 산출하고 RAI 점수가 총점의 중앙치보다 높은 참가자 집단을 자율적 동기 집단으로, 총점의 중앙치보다 낮은 참가자 집단을 통제적 동기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분석했다. 이때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 RAI 점수에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적 동기와 통제적 동기가 모두 높은 경우와 모두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도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유학 결정에 대해 통제적 동기를 가진 몽골 유학생보다 자율적 동기를 가진 몽골 유학생의 학업 적응, 대학 만족도,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통제적 동기로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보다 자율적 동기로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이 학업에 더 잘 적응하고, 대학에 더 만족하며,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해 유학을 결정한 외국인 유학생보다 스스로 유학을 결정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 수준과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고(Chirkov *et al.*, 2007),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했다는 기존의 연구(Yang *et al.*, 20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 교류한 횟수를 교류 없거나 적음, 교류 중간, 교류 많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보았다.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과 교류가 없거나 적은 몽골 유학생보다 한국 학생과 교류 수준이 중간 정도이거나 많은 몽골 유학생의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국인 친구의 수를 친구없음, 친구중간, 친구많은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한국인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학업적, 사회적으로 더 잘 적응하고 대학에 더 만족하며 전반적으로 대학

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도 지지되었다. 이는 현지인 친구가 유학생의 언어적 또는 학업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Kim, 2007; Shin and Kim, 2019)와 현지인 친구가 적은 외국인 유학생보다 현지인 친구가 많은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 적응 수준은 더 높았다는 기존의 연구(Xiao and Ahn,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 교류한 횟수를 교류 없거나 적음, 교류 중간, 교류 많음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보았다. 최근 한 달 동안 타국 유학생과 교류가 없거나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의 사회적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 유학생 친구의 수를 친구없음, 친구중간, 친구많은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집단 간 대학생활 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타국인 친구가 없는 몽골 유학생들보다 이러한 친구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대학 만족도, 전반적인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들보다 타국 유학생 친구와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들이 더 높은 대학생활 적응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가설 3도 지지되었다. 이는 타국인 친구와의 교류가 유학생들의 학업적 성공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Pho and Schartner, 2021; Young *et al.*, 2013) 유학 생활 만족도, 사회 및 문화적 적응 역시 예측한다는 선행 연구(Schartner, 2014)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몽골 유학생을 지역과 상관없이 표집하여 설문을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몽골 유학생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특정 지역만을 대표할 가능성이 있으며, 몽골 유학생 전체 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참가자의 나이, 한국어 수준, 유학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주 지역(Yoon and Kim, 2017), 연령(Jie, 2014), 언어 수준(Jie, 2014)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다양한 지역 또는 한국어 수준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몽골 유학생이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학생, 자국 유학생, 타국 유학생과 상호작용한 날의 수를 측정하여 교우관계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때 단순 인사를 제외하고 일정 정도 이상의 상호작용을 한 경우를 상호작용한 날의 수에

포함했으나, 만남의 시간이나 대화의 내용 또는 깊이 등 상호작용의 질적인 차이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에서는 교우관계 유형을 측정할 때 상호작용의 양적인 측정치 외에 상호작용의 질적 차이를 함께 측정하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변인 모두 외국인 유학생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에 중요한 요인인 만큼 두 변인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에서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 간의 관계를 상정하여 독립적인 연구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일반화 가능성의 문제로서, 본 연구는 몽골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 유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 유형이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만을 설명하는 변인인지 혹은 다른 국가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역시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몽골 유학생 외에 다른 국가 유학생을 대상으로도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몽골 유학생과의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몽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후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타인 혹은 외부 압력으로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보다 스스로 유학을 결정한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유학을 결정하기 전 외국인 유학생이 스스로 유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학 목적, 유학 계획, 유학 후 계획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도와 유학 후 현지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 대학은 외국 대학, 기관, 학교와 체계적인 학생 상담 및 지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셋째, 본 연구는 몽골인 유학생이 외국에서 어떤 친구와 어떻게 친밀하게 지내는지에 따라 그들이 외국의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를 통해, 몽골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사회적 적응 및 대학 만족에 대해서는 현지인인 한국인은 물론 타국 유학생과의 교류가 중요함을 알 수 있어서, 몽골 유학생들에게 이러한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학 내외의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몽골

인 유학생의 개인 및 정서적 적응에는 자국인 몽골 유학생과의 교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몽골 유학생 공동체의 활성화도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An, Jin-Woo, and Chaie-Won Rhee. 2017. "Impa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Vietnamese International Students' College Adaptation: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Social Science* 28(3): 157-177. [In Korean]
- Baker, Robert W., and Bohdan St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Bimedekhgui Batkhashig. 2020. "A Study of Effects of School Adaptation of Mongolian Students" *Welfare & Cultural Diversity Studies* 2(2): 21-39. [In Korean]
- Bochner, Stephen, Beverly M. McLeod, and Anli Lin. 1977. "Friendship patterns of overseas students: A functional model 1."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2(4): 277-294.
- Brislin, Richard W. 1986. "The wording and translation of research instruments." pp. 137-164. in *Field methods in cross-cultural research* edited by W. J. Lonner, and J. W. Berry. Beverly Hills, CA: Sage.
- Chirkov, V., Vansteenkiste, M., Tao, R., and Lynch, M. 2007. "The role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and goals for study abroad in the adapt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2): 199-222.
- Choi, Eun-Hei, and Young-A Cho. 2014.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Campus Life for Mongolian Graduate Students in Korea." *Culture Technology Research* 17: 309-353. [In Korean]
- Deci, E. L., and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Berli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Deci, E. L., and Ryan, R. M. 1991. "A motivational approach to self: integration in personality." pp. 237-288 in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38: Perspectives on Motivation*, edited by Richard A. Dienstbier.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Deci, E. L., and Ryan, R. M. 2004.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New York, NY: University Rochester Press.
- Furnham, Adrian, and Naznin Alibhai. 1985. "The friendship networks of foreign stud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unctional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0(3-4): 709-722.
- Gagné, Marylène, and Edward L. Deci 2005.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work motiva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6(4): 331-362.
- Hodgins, Holley S., and C. Raymond Knee. 2002. "The integrating self and conscious

- experienc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87(100): 86-98.
- Hyun, Jin-Won. 1992.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on Level on Task Performance*. Unpublished M.A. Dissertation.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In Korean]
- Jie, Chen. 2014. “Factors related to Chinese Student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Transactional Analysis & Counseling* 4(1): 75-94. [In Korean]
- Kim, Doo-Sub. 2014. “Effects of Ethnic Composition of Residential Area on Social Activities and Adaptation Type of Foreign Wives in Korea: An Analysis of Neighborhood Effects.”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7(1): 1-29. [In Korean]
- Kim, Doo-Sub, and Jiwon Lee. 2015. “Effect of Residential Ethnic Composition on Life Satisfaction of Marriage Immigrant Wives in Korea.” *Family and Culture* 27(2): 130-156. [In Korean]
- Kim, Hyunjin.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accultur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cusing on Chinese, Vietnamese, Mongolian, Japa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9(4): 31-63. [In Korean]
- Kim, Hyun-Jin, and Young-joo Kim. 2015. “A qualitative study on the accultur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in Korea: focusing on the Korean use abilit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21(4): 201-225. [In Korean]
- Kim, Sojung, and Hana Song.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the Need for Cognitive Closure, Self-Esteem, School Adap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8(2): 219-234. [In Korean]
- Kim, Sun-Nam. 2007. “A Study on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nhancing Chinese Students' College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0(1): 185-206. [In Korean]
- Kim, Sun-Young. 2014. “Cultural Adjust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Services and Program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2(1): 131-157. [In Korean]
- Lee, Yeaseul, and Eunha Kim. 2015.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ypes of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295-316. [In Korean]
- Lim, Choonhee. 2009. “Acculturative Stresses and Adjustment element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1): 93-112.

[In Korean]

- Maundeni, Tapologo. 2001. "The role of social networks in the adjustment of African students to British society: Students' perceptions." *Race Ethnicity and Education* 4(3): 253-276.
- Ministry of Justice. 2022. *Status of Illegal Foreigners by Status of Residence*.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Explanatory Data on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Attracting and Managing Foreign Students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Education. 2021. *2021 Information Disclosure Statistic for Foreign Students in Domestic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 Neri, Frank, and Simon Ville. 2008. "Social capital renewal and the academic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The Journal of Socio-Economics* 37(4): 1515-1538.
- Park, Jinwook, and Eunyong Park. 2017. "Developing a diagnose tool(inventory) for foreign student's academic life satisfaction." *Minjok Yeonku* 69: 4-19. [In Korean]
- Park, Soon Young. 2016. "Foreign Students' Adaptation to College Life in Korea - Focusing on the Social Relations -"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4(2): 75-102.
- Pho, Hanh, and Alina Schartner. 2021. "Social contact patterns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impact on academic adaptatio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42(6): 489-502.
- Rosenthal, Doreen Anne, Jean Russell, and Garry Thomson. 2007. "Social connectednes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t an Australian univers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4(1): 71-82.
- Ryan, Richard M., and Edward L.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chartner, Alina. 2014. *Cross-cultural transition in higher education: The academic,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adaptation of international postgraduate students at a British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K Newcastle upon Tyne: Newcastle University.
- Schartner, Alina. 2015. "'You can not talk with all of the strangers in a pub': A longitudinal case study of international postgraduate students' social ties at a British university." *Higher Education* 69(2): 225-241.
- Schartner, Alina, and Tony Johnstone Young. 2016. "Towards an integrated conceptual model of international student adjustment and adaptation." *European Journal of*

- Higher Education* 6(4): 372-386.
- Shin, Dong Hoon, and Doo-sub Kim. 2019. "Effects of homeland-oriented friendship on Chines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emotional adaptation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12(1): 47-68. [In Korean]
- Shin, In Cheol, Ji eun Han, and Hyomin Park. 2018. "A Study of the Dropout Rate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its Factors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ety* 11(2): 105-133. [In Korean]
- Song, Jung Ae, and Jung Soon Jang. 2010. "A Research abou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for a Correlation between Community College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s and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1): 119-144. [In Korean]
- Van den Broeck, A., Lens, W., De Witte, H., and Van Coillie, H. 2013. "Unraveling the importance of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workers' motivation for well-being: A person-centered per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2(1): 69-78.
- Xiao, XiaoLi, and Doehee Ahn. 2016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Academic Adjustment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Korean Education Inquiry* 34(3): 133-155. [In Korean]
- Yang, Ying, Zhang Yixin, and Kennon M. Sheldon. 2018. "Self-determined motivation for studying abroad predicts lower culture shock and greater well-being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63: 95-104.
- Yoon, Jiwon, and Sangwook Kim. 2017. "A Study on the Foreign Student College Life Adaptation- The Case of Chinese Foreign Student -" *China and Sinology* 1(32): 29-56. [In Korean]
- Young, Tony J., Sercombe, P. G., Sachdev, I., Naeb, R., and Schartner, A. 2013. "Success factors for international postgraduate students' adjustment: exploring the roles of intercultural competence, language proficiency, social contact and social support." *Europe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3(2): 151-171.

(2023.01.02. 접수; 2023.02.18. 수정; 2023.02.28. 채택)

몽골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에 르 땡 칙 트 바 이 가 리** · 김 경 란*** · 석 동 헌****

본 연구는 몽골 유학생의 자기 결정적 유학 동기와 교우관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몽골 유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몽골어로 번역된 유학 결정 동기와 교우관계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자료를 빈도분석, Pearson 상관분석, 변량분석(ANOVA)으로 분석했으며, 변량분석 결과의 유의한 차이에 대해서는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학 결정에 대한 통제적 동기가 높은 몽골 유학생보다 유학 결정에 대한 자율적 동기가 높은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했다. 둘째, 한국 학생과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보다 한국 학생과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했다. 셋째, 타국 유학생과 교류가 적은 몽골 유학생보다 타국 유학생과 교류가 많은 몽골 유학생이 대학생활에 더 잘 적응했다. 본 연구는 몽골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몽골 유학생, 자기 결정적 동기, 유학, 교우관계, 대학생활 적응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이며, 제1저자인 에르땡칙트 바이가리(2021)의 대구대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수정한 것임.

**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석사졸업. baigaliee@gmail.com

***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kgr@daegu.ac.kr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sdh@daegu.ac.kr

<https://doi.org/10.33071/ssricb.47.1.202302.49>